

코로나 확산세, 원자재값 상승… KDI “경기 불확실성 확대”

KDI 9월 경제동향

완만한 경기 회복세 유지 불구
코로나에 불확실성 확대 진단
거리두기로 대면 서비스업 부진

원자재 수급 불균형도 주요 원인
투자·소비 등 기업심리 위축 우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진단한 주된 요인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자재값 상승을 꼽았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민, 기업 등 경제 주체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소비와 투자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KDI는 7일 ‘9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5~6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경기 회복을 언급했다. 하지만, 7월 델타변이 등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다시 불확실성을 표현했고, 8~9월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을 냈다.

KDI는 “수도권 중심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



‘1인당 25만원’ 씩을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7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재난 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출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입의 높은 증가세는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KDI 분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자리도 대면 서비스업과 청년층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만 20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축소됐다. 도·소매업(-18만 6000명), 숙박·음식점업(-1만 2000명)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고용 충격이 컸다.

소비자물가도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유지됐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특히,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년 보다 3.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대면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은 -7.5% 감소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도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전월(103.2)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02.5를 기록했다. 기업과 소비

심리 모두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다.

의 부진이 다시 심화됐다”며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제조업 기업 심리도 위축되는 등 경제 심리의 개선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기업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지난 8월 96에서 이번 달 94로 내려갔다.

7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4.2%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영향으로

“10년 후 美 제치고 세계 1위” 中, 제조업 혁신·성장 ‘관건’

차이나 뉴스 & 리포트

블룸버그, 2031년 세계 경제전망
중국 GDP, 제조업 기여도 하락세
규제보단 개혁·개방 필요 목소리

중국이 빠르면 오는 203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관건은 제조업이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제조업이 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중국은 하이테크 제조업에서는 여전히 일본이나 독일에 크게 뒤져있는 상황이다.

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빠르면 2031년에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100년 이 넘게 세계 최대 경제국의 자리를 유지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소비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 성장 동력은 제조업이다.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 역시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이나 인프라 확충이 아닌 제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임금인상 등 제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정책도 담겼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가오가오 사무처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NDRC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내실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의 경쟁력이 향후 세계에서 국가의 위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BVA 샤러 아시아태평양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향후 10~15년 동안 중국의 성장 목표인 약 5~5.5%를 달성하기 위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GDP에 대한 제조업의 기여도는 지난 2019년 27.7%로 이전 4년간 30% 이상에서 하락했다.

NDRC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에 제조업 신규 등록 기업의 수는 평균 5.2% 감소했다. 반면 폐업한 제조업체의 수는 같은 기간 평균 24.6%나 증가했다.

옥스퍼드대학 중국센터 조지 매그너스 부교수는 “중국이 제조업을 육성해 미국이나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국가와 경쟁하거나 앞서나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혁신성은 떨어진다”며 “중국 정부가 규제보다는 개혁, 개방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방에 추석선물 고민 해결!

**명품홍삼 제품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공급보장!**

80% 할인!

(일부품목, 추석까지이며 일부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6년근홍삼

**제품가격 6천원부터
제품종류 500 여 개**

**SINCE 1996
BH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25년 역사의 홍삼을 가장 잘 아는 기업

방문 환영 (인기상품 샘플완비)

내방하시는 모든 분들께 사은품 증정!

상품문의 (친절상담)

02) 2163-0044

010-5183-0048

ID: KOREAHONGSAM

haetter@naver.com

거래(카드, 이체)하시고, 택배로 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주: 대한홍삼(주) 기업은행 074-063579-01-010